



66. 최고 수준의 대항(對抗)·대공(對空)·대잠(對潛) 능력을 갖춘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KDX-III·7천600t급) 1번 함의 진수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 구축함이 진수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미국·일본·스페인·노르웨이(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시험운행을 거쳐 2008년 해군에 실전 배치될 이지스 구축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세종대왕함 ② 서해함
③ 남해함 ④ 제주도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마~ 저도 먹고 싶어요

"맛있을까? 신기하다" 엄마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최근 광주여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지역특화문화축제 '아싸 아시아'라는 행사를 둘러봤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음식을 만들고 사서 맛을 보는 음식체험자리인데, 궁금한 모양입니다.

한 꼬마가 빨간 대야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매일 먹는 흰 쌀밥에, 감자, 깍두기 반찬이 아니라 그런걸까요. 밥새도 틀리나 봅니다. 까치발을 한 것 같네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엄마가 먹은 것은 바로 베트남 음식이었습니니다.

한국 사람들, 햄버거·피자 등에 익숙해져 있고 스테이크와 랍스터를 먹었다며 유명 레스토랑에서 줄을 서기도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늘면서 우리 주변 음식도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 직장 동료, 농촌 지역에서는 피부 색깔이 다른 이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음식문화를 즐기는 풍토도 글로벌시대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남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안금의
〈강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선생님, 또 올챙이 잡으러 가요

맑은 물 속에서 깨어나지 않은 알들은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라도 하듯 뭉쳐있고 올챙이는 꼬리를 흔들며 애써 아이들을 반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올챙이를 보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올챙이를 잡으려고 두 손을 내밀었다.

무서워하던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올챙이를 잡아 보려는 아이! 물 속으로 뛰어든 아이!

올챙이는 약을 올리며 도망 갈 때면 아이들은 운동화 끈은 졸도 모르고 물속 깊이 들어가 올챙이를 잡아댄다.

"선생님, 올챙이 잡았어요."

"나도요."

"나는 두 마리나 잡았어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이들의 실망한 모습을 뒤로 한 채 올챙이를 가지고 교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올챙이 열을 떠나지 않았고 올챙이의 움직임이 신기해서인지 가끔 유유를 붓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떠다 부어놓기도 하였다.

다음날도 역시 수족관 옆에 둘러앉아 올챙이를 들여다보며 손을

넣어 만져보기도 하고 수족관을 흔들며 보기도 하였다.

올챙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몇 명의 아이들이 없어졌다.

교실과 운동장, 유치원 놀이터, 모래놀이장에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아 다녔다.

교문 밖은 위험한데, 대형 트럭들이 세차게 달리는 도로에 뛰어들면 어쩌나...

교실 뒤쪽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료수병, 세숫대야를 들고 돌아온걸 보니 올챙이를 잡으러 간 모양이다.

"선생님, 올챙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실망스런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이슬이 맺혔다.

아이들을 찾은 기쁨에 아담치지 못하고 다음에 잡으러 가자며 훗날을 기약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 주었던 그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어버린 지금...

아이들은 기억이나 할까?

장난감을 던지고 발로 밟고 총과 칼을 만들어 칼싸움을 하던 아이들이...

올챙이가 자라서 팔다리가 개구리가 되듯 더욱더 의외하고 씩씩한 어린이가 되어 있겠지?

따스한 햇살아래 피어있는 작은 꽃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봄을 알리는 인사말 한다.

"꽃피게질 하러가자." 동그란 두 눈들은 나를 향해 쳐다보았고 곧이어 "아! 신나다." 하는 함성과 흥분된 목소리가 교실을 소란하게 하였다.

바닷바람을 이겨내며 빠른 봄을 알려주는 꽃들은 우리 아이들 만큼이나 어여쁜 모습이다.

교실 뒤 논두렁을 걷다보니 따스한 햇살에 눈이 부신다.

논두렁 주위에 보드란 꽃과 물이 찰랑찰랑! 뽕가 꿈틀거리기까지 한다.

그곳엔 갓 깨어난 올챙이들이 수영연습을 하고 있는 듯 분주하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 (음 4월 13일 癸亥)

子	36년생 초행길은 불연하니 살피자 행동하라. 48년생 순위에 항해하는 격이다. 60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72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피라. 84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예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피라. 행운의 숫자: 01, 43
丑	37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이나 놓치지 마라. 49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61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73년생 부부간의 인연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85년생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02, 31
寅	38년생 어부지라는 있으나 작다. 50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뢰로써 진행하라. 62년생 인물이 무너지면 끝판으로 추락한다. 74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3, 42
卯	39년생 맑은 감동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1년생 안중보색을 하나 잡지는 않다. 63년생 하는 일마다 불연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75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辰	40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2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4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지내라. 76년생 부부의 애정인 살아나다. 행운의 숫자: 24, 44
巳	41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3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5년생 불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77년생 서투르기와 뒷사람으로 인해 불연이 있다. 행운의 숫자: 16, 17
午	42년생 바깥엔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피라. 54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66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 하듯 지내라. 78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니 이상문제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2, 34
未	4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피라. 67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9년생 입을 조심하라 불어놓는 공포가 뒤따라 격정이다. 행운의 숫자: 21, 32
申	44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6년생 구실이 따르고 신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달림 없으리라. 80년생 일 거수 일 투족과 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18, 35
酉	45년생 혼자서 노는 격이니 재미가 없다 이웃과 정을 나누라. 57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잡으라. 69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1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1, 41
戌	46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58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70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82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20, 38
亥	47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59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은 잃지 마라. 71년생 새 날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83년생 순풍과 역풍이 오라기까라니 조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일백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작은 이익의 유혹 2보(13~36)

白 이한재 4단 (조선대) 黑 이민재 4단 (광주시청 A)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백 ㉞가 얽은 수로 손해를 봤다. 이 민재 4단은 이 수를 보더니 본능적으로 악수임을 감지한다. 상대가 악수를 두어 오더라도 이를 적절히 응징하지 못하면 악수가 오히려 호수가 되어 버린다. 정확한 응징만이 악수의 의미를 크게 하는 법이다.

이민재 4단은 즉각 13으로 뚫고 불문곡직으로 15로 끊어버렸다. 이것으로 크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수순

이 사실은 작은 이익의 유혹에 빠지고 만 수로 결정타를 놓치고 있다. 흑 15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한번 더 밀고 3으로 끊어야 했다. 그런 다음 5·7로 밀어 백 두점을 죽으로 잡으면 대성공이다. 위쪽 흑 두점은 귀의 침입수단도 있어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하다. 백 4로 5에 이어준다면 실전과 비교할 때 훨씬 이득이다. 흑이 기분은 좋아보이나 백도 선수를 잡아 20으로 걸쳐 이제부터의 바둑으로 보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최원용, 물가정보매 본선 진출

최원용 5단은 28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매 프리기전 D조 대국에서 루이 나이웨이 9단을 260수 만에 백 4집 반으로 제압, 결선에 진출했다. 루이 9단은 3패로 탈락했다.

최원용 5단은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본선 리그전에서 3승으로 결선에 진출한 뒤 결선에서는 박영훈 9단과 이창호 9단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오른 바 있다.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제2기 물가정보매 프리기전은 제한시간 각자 10분, 초읽기 40초 3회로 진행된다. 대회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굿모닝 잉글리쉬 <914></p> <p>Please look up the number of Mr.~ ~씨 전화번호를 찾아봐 주세요</p> <p>A: This is information. May I help you? B: Please look up the number of Mr. Broadmann Choi who lives at 34-6 Gung Dong. A: Just a moment, please. Mr. Broadmann Choi, the number is 222-6323. B: Thank you for your help.</p> <p>A: 안내합니다. 뭘 도와 드릴까요? B: 궁동 34-6에 사는 Broadmann Choi 씨의 전화 번호를 찾아봐 주세요. A: 잠깐만요. Mr. Broadmann Choi의 번호는 222-6323입니다. B: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p> <p>다시 한번 말해주실래요? = Once more, please? 캐나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 The call to Canada is connected. Go ahead, please 긴급전보를 치려고 합니다 = Please send this as an urgent telegram</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914></p> <p>故郷の香りがしますね 고향의 향기(정)가 납니다</p> <p>A: 佐藤さん、日本にもそれぞれの地方(ちほう)に訛(なまり)があるでしょう。 B: ええ、もちろんですよ。でも、東京に住(す)んでいる人は方言(ほうげん)はほとんど使いませんね。 A: 方言(ほうげん)ってあなたか味(あじ)を感(かん)じますけどね。 B: そうですね。故郷の香りがしますね。</p> <p>A: 사또씨, 일본에도 각 지방에 사투리가 있지요? B: 예에,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방언(사투리)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A: 방언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만. B: 그렇습니다. 고향의 향기(정)가 납니다.</p> <p>地方(ちほう): 지방 方言(ほうげん): 방언 ほとんど: 거의, 대부분 あなたか味(あじ): 따뜻함 感(かん)じる: 느끼다</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05></p> <p>路上堵车 길에 차가 막히다</p> <p>A: 你怎么还没有到? Ni zěnmé hái méi yóu dào? 니 전머 하이 메이 여우 따오? B: 对不起, 路上堵车. 你现在在哪儿? Duìbuqǐ, lù shàng dǔ chē. nǐ xiànzài zài nǎr? 후이 부치, 루 상 두 처. 니 현 시엔 짜이 짜이 날? A: 我们已经到咖啡厅了。 Wǒmen yǐjīng dào kāfēitīng le. 위먼 이징 따오 카페이팅 러. B: 好, 一会儿见。 Hǎo, yíhuìr jiàn. 하오, 이 후얼 지엔.</p> <p>A: 너는 왜 아직 안왔? B: 미안해, 차가 막혀서. 너희를 지금 어디에 있어? A: 우리는 벌써 커피숍에 왔ాయి. B: 그래, 좀 있다 봐.</p> <p>路上 [lùshàng] 길 堵车 [dǔchē] 차가 막히다</p> <p><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p>	<p>한자 이야기 <531></p> <p>入郷循俗 (입향순속) 들입, 마을 향, 좇을 순, 풍속 속</p> <p>입향순속(入郷循俗)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풍속을 따른다는 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 풍속대로 하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즉 현상에 만족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p> <p>이 말은 전국(戰國)시대의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중의 하나인 '회남자(淮南子)' '장자(莊子)', 그리고 중용(中庸) 등에 보인다. 회남자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고장의 풍속을 따르라(入其國者 從其俗)"는 말이 있고, 장자에는 "그 풍속에 들어가서는 그 풍속에 따르라(入其俗從其俗)"는 말이 있으며, 맹자에는 "경계에 들어서면 금하는 것을 물어보라(入竟問禁)"는 말이 있다. 중용에서는 "부귀에 처하여서는 부귀를 행하고, 빈천(貧賤)에 처하여서는 빈천을 행하고 오랑개에 처하여서는 오랑개에서 행하고, 환란에 처하여서는 환란을 행하라"는 말도 있다. 모두 현실에 순응(順應)하라는 말이다.</p> <p>'입향순속'은 위에서 보면 '장자'와 '회남자'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라고 하겠다. 즉 개인이 속한 국가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춘추전국 시대의 급박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지혜라고 하겠다.</p> <p><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p>
---	---	--	--